

우리동네 머슴 자처한 마당발 일꾼

대연5동 신상진 통장

대연5동 신상진 17통장을 만나러 가는 길,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익숙한 듯 동네를 유유히 살펴본다. TV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낯설기도 하고 푸근한 장면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장소가 아파트 경로당만 아니었다면 이장님이라 부르고 싶었던 정겨운 모습, 바로 올해로 9년째 대연5동에서 일하고 있는 신상진 통장이었다.

처음 통장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신상진 통장은 어릴 적 살던 고향의 이장님이 떠올라 거절했다고 한다.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집안이 넉넉해 물질적으로도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일찌감치 신상진 통장의 남다른 봉사정신과 소통력을 알아본 대연5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부녀회장 등의 끈질긴 설득으로 2010년 11월부터 통장 자리를 맡게 됐다.

“통장이 되고나니 자리가 주는 사명감 때문인지 우리동네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직업이 있는 다른 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주민들과 관련된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며가며 마주치는 동네 봉사단체의 집을 들어드리는 것부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 제도까지 신상진 통장의 동네에 대한 관심은 실로 다양하다. 그래서 이 동네 주민들 중에 신상진 통장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옆 동네가 한창 재개발 중일 때는 어수선한 분위기만이라도 정리하고 싶어 폐쇄된 통의 통장을 자처하기도 했으니 ‘마당발 일꾼’이라는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사람도 없으리라.

햇수로 10년째 통장으로 활동한 덕분에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친아들보다도 더 아들 같은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경우가 많다. 친아들을 대신해 병



원에 데려다드렸던 동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등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어르신들이 이제 한두 분씩 곁을 떠나시니 슬퍼할 일이 너무 많아진 것이다.

“아유, 이제는 경조사비도 부담되고요. 하하. 저보다 훌륭한 후임 통장님이 빨리 나타나서 저는 이제 통장 신분으로는 할

수 없는 다른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우스갯소리를 하면서도 다른 동의 특화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고, 동네 어머님들과 잘 못 어울리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신상진 통장. 통장이 아닌 다른 모습 일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든 오래오래 마당발 일꾼으로 활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시설 소식

우암 벼룩시장 개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0월 31일 우암동 (구)시장에서 벼룩시장을 개최했다. 문현2동 프개방 어르신들은 직접 만든 수세미를, 소맥새뜰공동체에서는 직접 만든 소 모형 열쇠고리와 동전지갑, 라크라메 등을 판매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물건을 사고팔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장애인 가족 여행 지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후원자 모임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 10월 15일 모임 창설 10주년을 맞이해 성인지적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지원했다. 1,100만원의 후원금을 성인지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전달했으며, 이 후원금으로 13명의 장애인과 8명의 가족들이 2박3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2009년 12월 발족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은 10년간 어르신 식사, 감장감지, 청소년 교복, 겨울용품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후원 및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강남공교실 킬트인형 만들기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3일 야간 보호사업의 일환인 강남공교실 아동 12명을 대상으로 킬트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아동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유엔로교회, 플리마켓 수익금 우일장학회에 전액 기부

우암동 유엔로교회(목사 유현균)는 지난 23일, 10월 25~26일 개최된 가을 플리마켓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 350만원 전액을 우일장학회(회장 권종섭)에 기부했다. 유현균 목사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육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꽃구경, 이웃구경... 가을이 익어간다

어느 팔순 노부부의 국화전시회 나들이

“국화가 그렇게 높게 매달려서 오래오래 잘도 피어 있네요. 남구에 오래 살았어도 그렇게 좋은 꽃 축제를 하는 지 이제야 알았네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내 손을 끌며 손발순(81) 할머니는 함박웃음을 웃어 주셨다. 집 앞에는 늘 철에 맞는 꽃 화분이 놓여 있다. 할머니는 “꽃 좋을 때 같이 봐야지요.”라고 말하며 옥상에서 문 앞으로 화분을 내 놓는 수고를 자청하신다.

다정한 부부의 여행담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장관을 봤다며, 평화공원의 국화꽃 축제장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꽃이 그렇게나 많이 피려면 얼마나 고생스럽게 가꾸어야 될까요? 여기 저기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네요, 색도 어찌나 화려한지, 국화가 화려하다는 생각은 처음 해봤어요. 그지요, 여보? 꽃구경도 좋았는데, 더 좋은 구경도 했어요. 유치원 학생들이 몇 그룹이나 와 있는데, 노란 옷

입고 손잡고 다니는데 너무 예쁜거라. 그리고 사하구 어느 교회에서는 관방버스가 세대나 왔다네요. 번호를 적은 이름표를 달고 100명이나 왔네요. 손뼉치고 노래 부르고, 사람 구경도 많이 했어요.”

옆에 있던 최정식(82) 할아버지가 한 말씀 거들었다. “다른 사람도 구경하고 우리 구경도 많이 시키고, 허허.”

사이좋게 나이 들어가는 부부를 부러워했을 거라 거들었더니 부부 모두 활짝 웃으신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나섰는데 1시간 30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고생하기는 했어요. 내년에는 파스 붙이고 허리띠(복대)도 하고 가야겠어요. 좋은 꽃구경 사람구경하면서 올 해 가을도 잘 가고 있어요.”

날씨 좋은 가을, 집을 나서 힘들지 않게 찾아갈 수 있는 꽃 축제가 있는 남구에 사는 것이 참 좋다고 말하며, 내년의 국화꽃 축제를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기를 부부는 기대한다.



■ 온 정 을 나 뉘 주 세 요

방광암 진단받았지만, 수술비가 걱정인 영민어르신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 걱정입니다.”

영민 어르신(가명)(남, 80세)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차량 정비 일을 하였고 결혼 후에는 고속버스를 운행하며 경제활동을 계속 해왔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교통사고 휴유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어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을 해왔지만 방광암이 발병하여 더 이상의 경제활동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13년 전 발병한 방광암으로 인해 총 6회에 걸친 수술로 방광을 절출하였고 이후 장루, 요루장애프로 인해 현재까지 복부에 배변 주머니를 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와 질병 때문에 자주 병원에 다녀야 하지만 거동도 불편하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처방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신장 결석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오래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어진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혼 후 홀로 조그만 집에서 생활하다 현재는 2층에 위치한 작은 방을 구해 월세를 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동도 불편한데다가 화장실은 1층에 위치하고 있어 어느 날은 1층 화장실을 가기위해 계단을 이용하다가 굴러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현재 집은 거동이 불편한 80세의 어르신이 생활하기에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가까워서 돌봐줄 가족이 없어 외롭지만 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어렵게 생활 중인 영민 어르신에게 병원비와 생활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갑작스런 수술과 입원에 병원비가 부담되어 수술을 망설이고 있는 영민 어르신이 남은 생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가오는 겨울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기다립니다.



♥ 성금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에 게재된 일영 씨 사연에 대하여 ○○○온정님 5만원, ○○○온정님 20만원, ○○○온정님 2만원, ○○○온정님 2만5천원, ○○○온정님 10만원, ○○○온정님 3만원, ○○○온정님 5만원을 일영 씨께 잘 전달하였습니다. ※ 용호동 소재 늘빛교회에서 바자회 수익금 125만원을 「온정을 나눠주세요」 11월 사연에 기부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움 주실 분 연락바랍니다

☎607-4870

(주민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부산은행 315-01-000297-0

(예금주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입금자명 뒤에 '온정'을 붙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시-홍길동정)

■ 사 진 으 로 보 는 동 네 소 식



용호4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지난 5일 '사랑의 반찬 나누기 행사'를 개최해 저소득층 30여 세대에 반찬을 전달했다.



용당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용당 체육공원에 영산홍 약 1,000그루를 심고 체육시설 정비 활동을 펼쳤다.



감만2동 다북동패키지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주거취약계층 22세대의 불량 등 69개를 LED조명으로 교체해 주거만족도를 높였다.



우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사회복지기업 ㈜더옴 및 자원봉사자 10여명과 함께 소맥마를 홍보 벽화 그리기를 실시했다.



문현1동 금융단지주주회는 지난 10월 28일 저소득층을 위한 750만원 상당의 쌀 10kg 300포를 전달했다.



문현2동 지난 2일 옥천암에서 어르신 경로잔치를 개최해 점심을 대접하고 저소득층 108명에게 쌀과 돼지고기를 후원했다.



문현4동 부산대연라이온스클럽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1천만원 상당의 회원 후원금으로 성지경로당 개·보수 공사를 실시했다.



문현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일 화재취약계층 5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했다.